

강동권 생활권계획 수립 착수... '15분 도시 부산' 조성 첫 발

부산시, 서부산 발전 가속화로 동서 균형발전 실현 의지 반영 노후 주거지 정주환경 개선 등 3가지 발전전략 구체화 추진

부산시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의 실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시민 맞춤형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그 첫발을 강동권에서 내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서부산 발전을 가속화하고 본격적인 부산 동서 균형발전의 실현에 대한 시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2021년 4월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이후 서부산 현장 회의 개최(14회),

서부산 현장점검 실시 등 시는 동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서부산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서부산은 강서권(강서구)과 강동권(북구·사상구·사하구) 등 총 2개의 생활권이 있지만, 도시의 노후 정도를 감안해 우선 강동권부터 생활권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생활권계획은 부산시 전역을 ▲6개 권역(중생활권) ▲2~3개 행정동 단위의 60여 개 지역(소생활권) 등으로 세분하고, 도시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주거·공원녹지·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을 생활권별로 발전전략과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15분 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핵심 계획이다.

시는 생활권계획에 포함되는 '생활권별 발전구상 및 공간관리지침'을 각종 도시계획 수립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립하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도 계획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일 먼저 수립하는 강동권 생활권계획은 ▲노후 주거지 정주환경 개선 ▲산지와 수변을 활용한 블루-그린 인프라 확보 ▲노후 공업지역 구조고도화 등 3가지 발전전략을 구체화해 주거·여가·첨단산업이 어우러진 공간 혁신허브 조성을 목표로 한다.

강동권은 주거지와 공업지역, 그리고 산·바다·하천이 위치하는 지리적 특색이 있는 지역으로, 다양한 분야

에서 개별적으로 수립되던 계획을 모두 종합해 강동권 특색에 맞춰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촘촘하고 세밀하게 수립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참여단 구성, 소생활권 권역 설정 등을 실시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계획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시민 맞춤형 생활권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동·서 균형발전을 앞당겨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지난해 4월 열린 여수·수원·전주 합동 '해외 MICE 관계자 초청 팸투어'

여수시 관광공사와 MICE 유치 박차

전 세계에 K-문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한국관광공사와 손을 맞잡고 해외 MICE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는 13일부터 4월까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몽골, 뉴욕, 싱가포르지사과 협력해 각 나라의 핵심여행사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팸투어에 참여하는 3개 나라의 여행사들은 6개월 이내 상품을 기획하고 그 나라 고객들에게 선보여야하는 미션을 수행해야함에 따라 시는 해외 MICE시장 판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여수(전남)=전정선 기자 spirit

순천시 시티투어 4월 기획코스 운영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순천시시티투어 4월 기획 코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 개막에 맞춰 시티투어 버스타고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라는 주제로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코스를 선보인다.

순천시시티투어는 월별, 계절별, 축제별, 마을별 테마와 연계한 기획투어와 주요 관광지를 정기 운행하는 테마투어로 운영하고 있다.

기획투어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른 주제로 코스가 진행된다. 특히 테마투어는 4월부터 야경투어를 선보인다. 체류형 관광을 위해 와온해변의 일몰, 아랫장야시장 등 순천의 야경 첫선을 보인다. 마지막 하차지점은 MZ세대들의 핫플인 조례동 '봉화상가 특화거리'로 정했다. /순천(전남)=전정선 기자

광주시 '유스퀘어 문화관' 역사속으로

광주 지역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온 유스퀘어 문화관이 개관 15년 만에 문을 닫는다.

금호고속은 오는 7월 광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문화관을 폐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09년 5월 29일 문을 연 유스퀘어문화관은 공연·전시 공간으로 활용돼왔다.

유스퀘어문화관은 316석이 마련된 클래식 전용홀 '금호아트홀', 다목적 공연장 '동산아트홀', 180평 규모의 '금호갤러리'로 구성되어 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화개장터에 벚꽃보러 오세요”

하동군, 22일부터 '벚꽃축제' 댄스경연·레크리에이션 등 준비

하동군이 올해 26회째를 맞는 '화개장터 벚꽃축제'를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화개면 그린나래광장에서 개최한다.

'봄의 정원, 벚꽃의 향기'를 주제로 화개면청년회가 주관하고 화개장터 벚꽃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하동군립예술단의 봄을 알리는 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관광객과 함께하는 즉석 레크리에이션, 벚꽃 DJ 뮤직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화개면 심리벚꽃길은 화개장터에서 쌍계사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100여 년을 이어온 1200여 그루의 나무가 있어 대한민

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꼽힌다. 특히 야간에는 화려한 조명으로 더 상적인 벚꽃길을 즐길 수 있다.

한편, 매년 화개장터 심리벚꽃길이 주차장 협소와 교통혼잡 문제가 발생해 올해는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주말(오전 8시~밤 10시) 동안 화개면 일부 구간 교통을 통제하고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 운행할 예정이다. 통제 구간은 하동군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상 이변으로 개화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축제 개최를 일주일 앞당겼다"며 "하동군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한 심리벚꽃길 개화 상황을 참고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봄의 정취를 맘껏 느끼며 소중한 추억을 가지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부산시는 12일(현지시간) 독일 슈타데시에서 에어버스 CTC와 대한항공, 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부산 미래항공산업 육성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 미래항공산업 육성 본격 나서

獨 에어버스 CTC 등과 업무협약

부산시가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항공산업 생태계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부산시는 독일 현지시각으로 지난 12일 독일 슈타데시에 위치한 에어버스(airbus) CTC 본사에서 에어버스 CTC, 대한항공,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 미래항공산업 육성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지자체에서 세계적 항공기 제

작 선도기업 에어버스의 연구소 에어버스 CTC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계적인 복합재 부품 연구개발 기업 에어버스 CTC 등과 협력해 차세대 수송기기(항공기, 도심항공교통(UAM), 자동차, 조선 등)에 사용될 복합재 연구개발이 목적이다. 또 특화된 지·산·학 클러스터를 부산에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미래항공산업 생태계를 육성할 방침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대구시, 윈스톱 기업지원박람회 성료

기업 판로개척·인력채용 등 진행

대구광역시시는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 개최하고 대구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2024 윈스톱 기업지원박람회'가 12일 오후 엑스코에서 성공리에 개막했다.

윈스톱기업지원박람회는 2015년 기업으로 해결 박람회로 시작했으나, 2022년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고 기업 고충상담에서부터 판로개척, 인력 채용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전국 유일의 윈스톱 종합 비즈니스 행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주최기관으로 참여하면

서,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통합지원 모범사례로서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확인하게 됐다.

13일 박람회장에서는 ▲구매 상담 ▲수출 확대 ▲스타트업 투자유치 ▲인력 채용 ▲애로 해결 ▲시책설명 등 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6개 핵심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이번 개막식은 흥준표 대구광역시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경제단체장, 공공기관장, 지역기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 환영사, 개막 세리머니, 박람회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해남군, 인구소멸 대응 '강해영 프로젝트'

강진-영암군과 연계, 관광활성화

해남군과 강진군, 영암군이 관광콘텐츠를 한데 묶어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강해영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3개 군은 지난 12일 서울에서 강해영(강진+해남+영암) 프로젝트 업무협약 및 동행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은 명현관 해남군수를 비롯

해 강진원 강진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등 3개 지자체와 고계성 한국관광학회장, 강신경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장, 김완수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 김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박정록 서울시관광협회장 권한대행 등 관계기관과 여행사, 인플루언서, 블로거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푸틴 "러시아 존립 위협엔 핵무기 사용" /사진 뉴시스
▲멜로니 伊총리, AI개발 위한 10억유로 기금조성계획 발표

▲"베네수엘라 석유생산량, 3개월째 연속 증가" -OPEC
▲"AI, 인류에 '멸종 수준' 위협 제기 가능성" 미국무부 위탁보고서



▲中, 가자 즉각 휴전 촉구... "미국이 소극적" 매체 지적도 /사진 뉴시스
▲日기업 개발 소형로켓 '카이로스' 발사 실패...수 초 후 폭발